

현/장/취/재-오늘의 여성농민① 여주군 장지순 씨의 24시

농약치기, 밭농사, 빨래 그리고 한숨

모두 빠져나간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여성농민

풀리지 않은 우리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농촌. 이곳의 '독'이 무너진다는 우려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 단지 국제 경쟁력에 걸맞는 상품을 생산해내는 또 다른 가능성을 지닌 '공장'으로써 급부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농번기인 농촌을 찾아가 오늘의 농촌 현실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울곡 2리. 서울에서 불과 1시간 30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이곳에 거주하는 이용호(60) 장지순(58) 부부는 평생을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전형적인 농부다. 이런 이용호 씨가 요즘 시간 맞춰 출근하는 직장인이 됐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자신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이 씨가 죽기전에 내 땅 한 평이라고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해부터 이천에 있는 사료공장 잡역부로 취직한 것이다. 월급은 75만원, 논 2마지기를 여름내내 지어도 결코 손에 쥐어지지 않는 액수다.

그렇다고 이 씨가 농사일을 그만 둔 것은 아니다. 올해는 5천평에 달하는 논을 얻어 벼농사를 지었다. 자연히 그의 일상이 바빠질 수 밖에 없다. 지난 11일 새벽 4시, 이 씨는 눈썹도 때지 않은 채 부리나케 논으로 달려갔다. "수확이 좋지 않으면 논 주인이 다음 해에는 논을 빌려주지 않아요." 이 씨는 소작농으로 겪어야 하는 갈등을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채 어둠이 벗겨지지 않은 논둑을 더듬거리 물꼬를 살피고 무성하게 자란 논둑 풀을 깎아낸다. 반 나절 동안 해야 할 일을 새벽에 해치우고 부랴부랴 다시 집으로 와서 옷을 갈아입고 밥도 뜨는 등 마는 등 공장으로 향한다. 이 씨가 공장에 취업한 이후 이 씨의 아내는 남정네들이 할 일까지 도맡아 하게 됐다. 얼마전까지 장 씨는 뜬모를 하느라 하루종일 밭이 푹 푹 빠지는 논에서 살았다고 한다.

뜬모는 농약하는 것에 비하면 별반 힘든 것도 아니다. 농약은 대부분 남정네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씨가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이 일도 자연히 장 씨의 일로 돌아왔다. 농약은 이 씨가 출근 전에 할 수 없는 일 중의 하나다. 이슬이 개인 이후에 농약을 뿌려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장 씨는 남편을 출근시킨 이후 농약할 준비를 했다. 마



1만5천원하던 20개들이 호박 1상자가 지금은 10배나 하락, 1천5백원에 팔린다. 가뭄으로 시든 호박밭에 물을 주다가 망연자실한 농민의 표정이 오늘의 농촌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스크를 하고 장갑을 끼고 중무장 태세다. 찌는 듯한 날씨에 그런 복장이 여간 답답한 게 아니지만 날아드는 농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경지정리가 잘 된 논은 경운기를 이용해 30여분만에 끝낼 수 있지만 이 씨 부부의 논은 농약통을 지고 일일이 고랑을 헤치며 다녀야 하기 때문에 반나절은 족히 걸린다. "한마지기만 농약을 뿌려도 하늘이 노랗게 보여요." 장 씨는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논두렁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벌이 뜨거워 일을 할 수 없는 정오를 전후한 시간에는 빨래며 설겆이 청소 등 밀린 집안 일을 하고 다시 밭으로 내달린다. 며칠만 소홀해도 금방 표가 나는 것이 밭농사다. 고추밭, 깨밭, 콩밭의 잡초는 곡식보다 훨씬 빨리 자라기 때문에 서둘러 뽑아주지 않으면 1년 밭농사를 망치게 된다.

밭일은 일일이 손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논일과는 또 다르게 힘이 든다. 가뭄이 들어 채소들이 시들거린다면 장 씨는 주전자를 들고 집을 나섰다. 웅덩이는 밭에서 7백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있었다. 커다란 주전자 가득 물을 떠다가 채소들 밑둥이에 부어봤자 겨우 마른 땅만 축일 뿐 축축해지지도 않았지만 장 씨는 열대여섯번을 왔다갔다 하며 5백평 넘게 심어져 있는 채소에 물을 다 주었다. 그때 시간은 오후 5시. 논두렁에서 잠시 숨을 돌린 장 씨는 다시 논으로 향했다. 물꼬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것이 돈만 된다면 신바람나게 일하겠는데 고추가 잘 됐다 싶으면 가격이

폭락하고 옥수수가 돈 벌이가 된다 싶으면 한 자루에 몇 백원에 팔리기 일쑤고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장 씨는 막막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씨는 밭 5백평을 팔 한 가마 값(12만원)에 빌려 호박농사를 짓고 있었다. 호박밭에 들어간 비용은 처음 파종할 때 들었던 종자 값과 비닐

저 지난 10일 현재 한 상자에 1천5백원에 팔려나가고 있었다. 불과 열흘만에 가격이 10배나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호박 30상자가 60원에 팔려나갔다. 한 상자에 2원, 호박 한 개는 현재의 화폐단위로로는 계산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식들을 객지로 내보내고 혼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할

값 등 20만원, 출하기에 접어들어 든 이후에는 상자값 30만원이 들었다. 밭 벌린 값을 합해 총 62만원이 든 셈인데 장 씨는 "본전 건지기는 애시당초 글렀다"고 말했다. 상자 하나에는 호박 20개가 들어 있는데 열흘전까지 1만5천원에 팔리던 것이 매물이 쏟아

머니들도 있었다. 울곡2리에만 세 명의 할머니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들은 논일을 할 때가 가장 걱정스럽다. 논을 갈아엎고 로타리치고 이앙기를 이용해 모를 심기까지 '기계품'을 사야 하는데 모를 심을 때는 1평당 90원을, 논을 로타리치거나 갈

때는 1백20원을 주어야 한다. 2백평인 논 한마지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총4만2천원이 들어야 한다. 열 마지기를 짓기 위해서는 42만원, 여기에 비료값과 농약값,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1백만원 이상의 현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중에 돈 없는 날이 있는 날보다 많은 농촌에서 1백만원의 현찰은 상당한 거액인 셈.

저녁 식사 시간에 비로소 얼굴을 마주한 이 부부는 "농사는 투기여. 어찌다 잘 되면 반짝 돈을 만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빚더미에 올라앉기 십상이지" 말했다.

울곡리에는 이 씨처럼 예순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취업한 사람이 6명이 나 된다. 이중 세명은 평생을 소작농으로 살아온 이 씨 처지와 똑같다. 기력이 쇠한 노인들이라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놓고 농사지를 땅 한조각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공장 취직은 주변 주민들의 부러움을 사고도 남는다.

사람 손이 귀한 농번기지만 모두들 일당 5,6만원이 넘는 공사판으로 나갔기 때문에 젊은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짓기 싫어

공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하는 이 씨는 "늘어가는 농가 부채를 농사 지어서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빚이라도 갚아볼 심산으로 막 일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의 아내 장 씨는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도 빚은 없었는데"라는 말로 농정을

꼬집었다. 농가가 부채를 지게된 것은 정부가 영농의 과학화, 기계화를 내세운 이후라는 것이 이 씨를 비롯한 울곡리 농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에 달하는 콤팩트 트랙터 등을 구입하면 당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선전된 정부의 말에 쫓겨 기계를 빚을 내어 구입한 그 순간부터 농부들이 채무자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콤팩트 트랙터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1개월 남짓. 자기 집 농사일을 다하고 남의 일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벌어들이 수 있는 돈은 불과 1,2백만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돈으로 이자를 물고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연 밭에 오줌 누기' 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또 특용작물을 재배하면 농가의 수입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정부의 권고도 부채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한다. 농협에서 영농자금 대출받아 비닐하우스나 특용작물을 재배하면 그 해에는 영락없이 가격이 폭락해 똥값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돈을 벌려면 정부가 하라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라는 것.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은 뿌리깊었다. 그 일례가 일품벼였다. 지난해 정부가 '병충해에도 강하고 수확이 많은 획기적인 품종'이라며 권한 일품벼는 농민들에게 다시 한번 진한 배신감을 주었다. 정부의 말과는 정반대로 일품벼는 다른 어느 품종보다 병충해에 약했고 수확도 눈에 띄게 적었기 때문이다.

일품벼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논을 얻어 벼농사를 지었던 여주의 한 농부가 최악의 피해를 입고 지난해 자살했다. 또 결혼하지 못한 것을비관해 자살한 청년 한 명 등 울들어 여주에서 자살한 농민들은 알려진 것만 3 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자살이나 하지 않게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씨는 여주를 떠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명순 기자>

남편은 공장에 취직해 '현금'을 벌고 여자가 모든 일을 도맡는 것이 요즘 농촌의 새로운 성별분업

농정개혁과 여성농민정책토론회

“농정에서 여성농민 배제됐다”

농촌실정 맞는 교육정책 수립돼야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여성농민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에서 여성들이 전면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월 7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임순분, 이하 전여농)이 농업기술진흥관에서 마련한 1차 정책토론회에서 전여농 정책위원 오미란 씨는 "여성노동력이 대거 투하되는 고추, 마늘, 양파 등 밭작물의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매되

는 농작물의 가격책정의 근거가 되는 생산비 산출 내역에 있어서 여성농민의 노동시간은 실제보다 적게 책정돼 남성노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농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을 시행하고 농촌의 주거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은 이날 ▲경지정리가 논농사 중심으로 돼 있어 여성노동력이 집중 투하되고 있는 밭농사가 원시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점

▲토지소유와 농사경영, 농작물 판매, 영농자금의 대출 등에서 여성농민들이 배제돼 있는 점 ▲정부의 후계자 육성사업이 여성농민들을 육성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정부의 여성농민 정책 부채를 비난했다.

한편 '농촌지역의 육아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행정 연구부장 유현숙 박사는 "오늘날 농촌지역의 이농을 촉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녀교육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농민들을 위한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박사는 국공립 유치원이 도시보다 농촌을 중심으로 설립돼 왔지만 취학전 교육기관의 절대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유 박사에 따르면 현재 여성농민 두 명 중 한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데 이중 절반은 자녀를 준방치 상태에 두고 있다.

이런 제반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유 박사는 ▲읍면 단위의 국공립 탁아소 설치 의무화 ▲농촌의 취학전 교육기관의 교재와 교구 확충 ▲전용 운동장 및 전용놀이시설 원비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취학전 교육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